

부여 상권활성화와 연계한 도심재생 토론회

일 시 : 2012년 11월 22일(목), 10:00~17:00
장 소 : 부여군청 재난종합상황실

부여 상권활성화와 연계한 도심재생 토론회

1. 개최 개요

- 일 시 : 2012년 11월 22일(목), 10:00~17:00
- 장 소 : 부여군청 2층 재난종합상황실
- 참석대상 : 연구원, 전문가 및 공무원 (약20명)
- 논의 내용
 - 부여도심의 실태파악
 -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및 개선방안 도출
 - 도심활성화를 위한 사업 도출

2. 시간 계획

시 간	프로그램	비 고
10:00	■부여군청 2층 재난종합상황실 집결	-
10:00~10:40	■부여현황 설명	윤정미 책임연구원
10:40~14:00	■부여도심 답사 - 공남지 ⇨ 역사문화재현단지 ⇨ 부소산성 ⇨ (구)부여박물관(부여군고도문화사업소) ⇨ 구드래 ⇨ 부여시장 ⇨ 중앙시장 ⇨ 정림사지	점심식사 포함
14:00~17:00	■토론 [문제제기→사업도출]	`재난종합상황실

3. 토론자 구성

- 외부연구진(가나다순)

토론자	소 속
김 남 룡 박 사	창원도시재생지원센터
김 항 집 교 수	광주대학교 도시계획과
류 태 창 박 사	시장경영진흥원
이 형 복 박 사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진 영 효 박 사	두리 공간환경연구소

- 내부연구진

성 명	소 속
윤 정 미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권 영 현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 형 빈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민 정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김 정 하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성 태 규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
임 준 홍	충남발전연구원 기획팀장
이 수 철	충남발전연구원 기획팀
김 정 희	충남발전연구원 기획담당

- 공무원

성 명	소 속
박 해 용	부여군 기획감사실장
김 학 준	부여군 기획감사담당
김 지 태	부여군 기획감사주무관
김 열 수	부여군 경제진흥과 과장
한 상 휘	부여군 지역경제 담당
소 완 영	부여군 지역경제 주무관

목차

■부여군 도심상권활성화 방안 연구 / 9

■부여군 상권활성화와 연계한 도심재생 토론문 / 60

■부록 : 2012년 10월 15일 토론회 회의록 / 71

부여군 도심상권활성화 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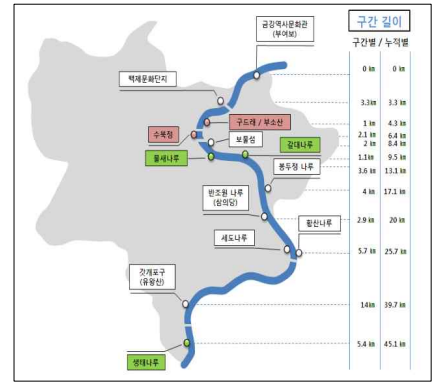
1. 부여군 여건 및 사업계획 현황
2. 상권활성화구역 현황
3. 개발수요 및 의식조사
4. 상권활성화 사업 사례
5. SWOT 분석 및 기본구상
6. 사업계획(안)

1. 부여군 여건 및 사업계획 현황

1) 환경적 여건

- 부여 고도에 대한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한 지구 지정과 고도보존계획 승인으로 개발과 보존에 탄력
 - 백제고도 123년의 고도로써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한 지구 지정과 고도보존계획 승인으로 부여군의 개발과 보존에 탄력
 - 고도보존 기간과 지역은 2012년부터 2021년(10년)까지 부여읍 쌍북리, 관북리, 구아리, 구교리, 석목리, 정동리, 동남리 일원의 특별보존지구 191만㎡와 역사문화 환경지구 101.4만㎡ 등 총 292.4만㎡가 사업지구로 지정
 - 특별보존지구 사업에는 사비 왕궁터 발굴 정비, 부소산 경관정비, 사비나성 복원, 왕궁추정지내 풀길 및 옛길 복원 등 7개 사업에 689억, 역사문화환경지구 사업에는 부여여고 및 도서관이전, 이주단지조성, 고도 환경개선, 구드래 전통속박촌 조성, 율함지 복원 및 공원조성, 옛길·옛물길 찾기,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등 13개 사업에 1871억 원, 기타 부대사업에 6억 원 등 총 21개사업에 2566억 원이 연차적으로 투자
- 백마강을 기반으로 한 수상관광 활성화 계획으로 관광 활성화 방안 추진 중
 - 금강살리기 사업과 세종시 출범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백마강을 기반으로 수상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 백마강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숙박 및 편의시설, 교통 등의 일반현황과 나무터, 역사유적, 체육시설 등 관광자원을 비롯해 국내의 수상관광 유형이 총망라된 총체적 종합 분석 수행
 - 백마강변 시설, 나무터, 백마강 인공섬 운영 등 관광인프라 구축 및 레저스포츠 단지 조성과 수상스포츠 개발 및 보급전략 수립

9



[그림 1] 수상관광 활성화 계획도

- 롯데 리조트에 주요 테마파크 시설 조성으로 부여 도심상권과 상생방안 계획 필요
 - 롯데 리조트에 2012년까지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맨션형 골프빌리지, 놀이공원, 명품 아울렛, 농업체험 전시관 등을 완공하고, 20014년 백제예술거리, 백제테마정원(생태 공원)과 스카 빌리지 등 주요 테마파크 시설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
 - 이에 따라 부여 시가지 도심상권과 신흥관광단지로 급부상 할 롯데복합테마존과의 상호 상생방안 계획
- 부여읍 도심 내에 롯데 복합 테마존 건립 방안 모색
 - 부여군은 부여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과 변화하는 관광객 패러다임을 반영한 부여군 관광발전 전략 계획 추진 중
 - 롯데복합단지의 관광객을 부여시내 상권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차별화된 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관광객 눈높이 맞춘 구 상권 환경개선 및 상인 의식개혁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

10

- 세종시 및 내포신도시 등 주변 개발에 따라 부여군의 기능적 특화 필요
 - 세종시 및 내포신도시 등 주변의 개발계획에 따라 부여는 역사성과 문화적 잠재력 및 특성을 살려 세종시 및 내포신도시와 연계하는 방안 모색
 - 신도시와의 기능충족을 피하면서 역할을 보완하는 기능적 특화가 중요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 역사문화교육을 중심으로 한 도시정비방안, 도시농업 도시로의 모델 구현 필요

2) 관광 및 자원현황

(1) 관광객 및 관광기반 현황

- 부여는 풍부한 역사문화 유적이 있어 관광자원의 기초적인 여건이 조성되어 있으며, 백제문화단지, 백제의 집 건립 등 다각적인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이 활발함에 따라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부여의 관광객은 2010년 7,507,500명이며, 내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대비 총 관광객이 56.9% 증가함

[표 1] 부여군 관광객 현황

구 분		2007	2008	2009	2010
유료관광지	내국인	1,605,201	1,631,294	1,545,808	2,267,112
	외국인	23,957	26,299	101,162	115,877
무료관광지		2,645,771	2,954,609	3,135,259	5,124,511
합계		4,274,929	4,612,202	4,782,229	7,507,500

자료 : 부여군, 부여군 통계연보, 각년도, 부여군 내부자료

- 기존의 문화유적 관광지(부소산성, 정림사지 등)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함
- 서동연꽃축제 개최장소인 금남지의 관광객이 46.7% 증가하였으며

11

- 그 밖에 구드래 관광지와 국립부여박물관이 증가하였음
- 또한 새로운 관광지로 개발된 서동요 오피스텔장과 백제역사재현 단지의 백제역사문화관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음
- 특히, 2010년 개장한 백제문화단지에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많은 수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기여함

[표 2] 부여 주요 관광지 방문객 현황(2010년)

구분	합계	부소산성	정림사지 박물관	능산리 고분군	박물관	무량사	만수산 자연휴양림	구드래 국산관광지	금남지	성종신성	서동요 촬영지	백제문화단지	백제역사문화관
명	7,507,500	672,329	208,536	136,882	425,665	132,584	25,583	1,924,655	1,450,982	74,382	25,428	1,952,799	477,804

자료 : 부여군 내부자료, 2011.

(2) 역사문화 관광자산 현황

- 백제 제26대 성왕이 웅진에서 이곳으로 도읍을 정하고 남부여라 하여 제 31대 의자왕 때 패망하기까지 123년간 백제의 왕도로서 유지됨
- 백제불교가 크게 진흥하여 일본까지 불경(佛經)-불구(佛具)-불상(佛像) 등을 통해 불교를 전하였고, 이와 함께 백제건축문화가 일본에 전해짐
- 부소산성, 정림사지, 금남지 등을 포함한 본 지역은 백제의 고도로서 찬란한 민족문화유산이 다수 산재
 - 부여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50건, 등록문화재 3건, 도지정문화재 56건, 문화재자료 41건 등 향토유적을 제외하고 총 150건의 풍부한 역사·문화유산이 있으며 백제시대의 문화재가 대다수를 차지함

[표 3] 부여군 문화재 현황

국 가 지 정 문 화 재								도 지 정 문 화 재				문화재 자료	계
국보	보물	사적	천연 기념물	무형 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중요무형 문화재	등록 문화재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시도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 자료	계
4	17	21	1	1	1	5	1	3	25	5	26	-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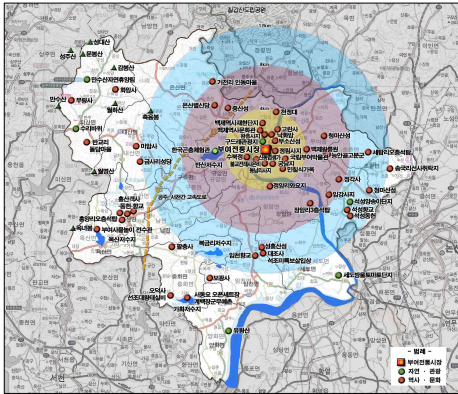
자료 : 부여군, 부여군 통계연보, 각년도

12

- 주요 역사문화 자산으로는 부소산성, 정림사지 및 정림사지박물관, 궁남지 및 백제오천결사대충혼탑(서동공원), 백제 왕릉원, 송국리 선사취락지, 낙화암, 고란사, 무량사, 홍산성 등이 있음

[표 4] 주요 역사문화 자산 현황

구분	위치	면적(㎡)	주요 시설	비고
부소산성	부여읍 쌍북리	874,492	삼층사, 영일루, 군창지, 궁내사, 사자루, 백화정, 고란사, 주차장 등 편의시설	사적 제5호
정림사지	부여읍 동남리	59,179	중문, 오층석탑, 연지, 금당, 강당, 주차장 등 편의시설	사적 제301호
궁남지	부여읍 동남리	211,735	포동정, 인접 군수리 사지, 주차장 등 편의시설	사적 제135호
백제왕릉원	부여읍 능산리	365,992	고분7기, 모황전사관 및 미정비 고분8기, 주차장 등	백제사적 제14호
고란사	부여읍 쌍북리		고란약수, 대웅전, 요사채, 범종각	고려추정
무량사	외산면 만수산		극락전, 5층석탑, 석등, 당간지주, 김시습부도 등	추정
성흥산성	임천면 군사리		산성, 유점필장군사당, 팔각정, 우물터, 느티나무 등	백제



[그림 2] 부여군 관광자원 현황

13

- 그리고 부여군에는 새로운 볼거리와 기존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대규모 관광지 조성사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음
- 백제역사자연단지는 1994년부터 충청남도과 문화관광부가 부소산과 낙화암 맞은편 백마강변에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재현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시설이며, 총 100만평 규모로 진행되고 있음
- 부여군 지정관광지인 구드래 관광지는 백제문화재 등 각종 행사장소 활용되고 있으며, 백마강 나루터가 있어 유람선을 이용할 수 있음
- 만수산자연휴양림은 차량산맥 끝 부분 만수산(해발 575m) 아래에 자리하고 산세가 연꽃처럼 여덟 계곡으로 형성되어 노송과 활엽수 천연림이 자연의 조화를 이뤄 각종 야생조수가 서식하는 휴양림임
 - 만수산자연휴양림에는 통나무집 숙박, 야외수영장, 야영, 등산, 레크리에이션, 운동 등을 위한 시설 구비

[표 5] 주요 관광지

구분	위치	면적(㎡)	시설	비고
백제역사 자연단지	규암면 합정리	3,305,800	개국촌·왕궁촌·전통민속촌·군사통신촌·장제묘지·촌산업교역촌·풍속종교촌	2010년 완공
구드래 관광지	부여읍 구교리	148,515	도로 및 광장, 주차장, 관리사무소, 화장실, 전망대, 분수대, 선착장, 파고라, 민속공연마당, 열린문화마당, 자연복지 등	
서동요 세트장	충화면 가화리	33,058	귀족집, 왕궁마을, 망루, 태학사, 궁방, 하늘재 마을, 목담, 신라왕궁, 정화정, 왕비처소, 정자, 후궁처소, 왕궁회랑, 백제왕궁 및 기념품 판매 부스, 간이화장실, 주차장, 식수대, 자판기, 차량형 이동식 스크린, 컨테이너 형 편의점, 탈 의식 및 대기실	세트제작 지원비50억, 기반시설 10억 투자
만수산 자연휴양림	외산면	1,300,000	황토방, 합숙소, 복합산악, 숲속의 집, 주차장, 전망대, 취사장, 체력단련장, 어린이놀이터, 수영장, 야외교실, 등산로, 기타휴식시설 등	1991년 개장

14

3) 관련 계획수립 현황

(1) 부여 소도읍 육성사업

- 부여 소도읍 육성사업은 4개 부문 9개 사업을 구상하였으며, 특히 도심상권과 연계된 사업으로는 도심상권활성화 구역내에 부여농특산물출제, 백제 주작대로 조성(부소산성~궁남지),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특히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인 백제주작대로 조성사업은 부여 시가지 내에 중요한 역사 유적이 있으나, 역사유적지간 연계 미흡으로 관광객과 주민들의 관광기반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임
 - 역사유적을 연계한 네트워크 역사문화거리 조성과 함께 중심상업지역과 연계함으로써 침체되어가는 거리에 활력을 부여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표 6] 부여 소도읍 육성사업 내용

구분	내용
사업명	역사문화환경
	백제문화 Expo 개최
	궁남지 연지공원 조성
	지역산업진흥
	지역특산물 축제
	백제주작대로 조성(부소산성-궁남지)
도시기반시설 정비	강변 경관도로 조성
	자전거 도로 및 이용시설 정비
	구드래 Riverfront 조성
	백제인의 쉼터 수목정 정비
생활환경복지증진	청소년수련관 체합장 조성

(2) 정림사지 정비 기본계획(2006년)

- 정림사지 정비를 통해 주민 및 관광객에게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 마련
 - 복원정비 영역 : 정림사지 정비, 연지 및 주변 정비
 - 박물관 및 관리 영역 : 박물관, 와요지 보호각, 안내센터, 주차장
 - 활용공간 영역 : 대지조성, 다목적 기능 수용, 경계구분

15

- 도심상권활성화 구역인 석탑로와 인접된 정림사지 정비사업을 통해 침체되어가는 상권에 활력 부여

(3) 충남고도 옛 모습 되살리기 사업(2001년~2020년)

- 충남의 5개 고도(부여, 공주, 홍성, 해미, 강경)의 옛 모습을 재현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된 문화관광도시로 특화육성 발전
 - 도심상권활성화 구역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정림사지 및 정림사지 주변정비, 석탑로 가로경관 정비사업, 전통문화전수관, 충효공원조성사업
 - 자전거도로 확장 및 거치대 설치, 대여소 설치 및 전산화 작업

(4) 백제고도 공간문화 바꾸기 매뉴얼 사업

- 부여의 역사문화 중심공간 이미지 향상과 지역활성화 및 역사문화 콘텐츠를 담은 상징거리를 조성하여 부여 관광사업 발전에 기여
 - 백제주작도로 약 2km구간(부소산성~ 궁남지 구간)
 - 시범가로 세부계획구간 780m, 3블록, 폭 25m
- 백제고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역사문화 경관을 살린 특화거리 조성

(5) 부여 궁남로(주작대로) 복원정비사업 기본계획(2009.6)

- 궁남로 2차선 및 양측 보도 547m에 전통과 문화가 숨 쉬는 부여 대표적 명소 조성,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궁남로(주작대로)의 역사성 회복을 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 역사가로 조성, 공간정비 및 시설물, 활동프로그램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백제대왕행차, 역사가로 걷기, 백제유구전시, 프리마켓(예술장터) 체험, 백제유적탐방, 벚꽃 명소 조성 등 계획
 - 조명등, 쉼터, 안내시설, 벤치, 상징조형물 등에 관한 계획 수립
 - 중앙시장 집합 가로 부분에 발코넨지 터널, 장터마당, 상업가로 계획 및 정림사지 역사가로 부분에 소공원, 석탑마당, 연지마당 등의 계획 수립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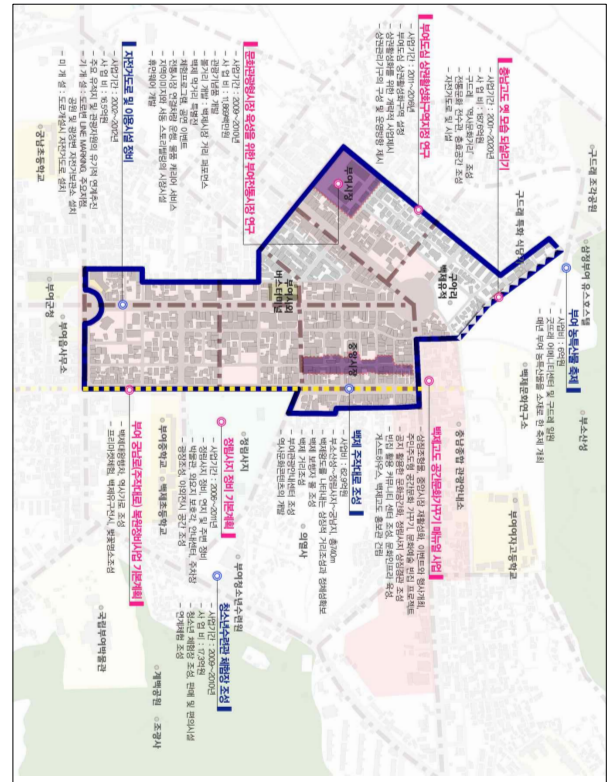
[6]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한 부여전통시장 계획

- 2008년 부여전통시장을 백제의 역사문화관광자산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
-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콘텐츠 및 상품개발, 공간디자인 정비, 휴먼웨어 개발 계획 수립
 - 문화관광형 부여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역사문화관광 콘텐츠 및 상품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방안

[표 7]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한 부여전통시장 계획 내용

구분	사업구상	내 용
소프트웨어 개발	부여 전통시장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부여시장 민의 관광기념품 개발
		분위기 연출을 위한 볼거리 개발
		먹거리(주제음식) 개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콘텐츠	부여시장 민의 체험프로그램 개발
		관광객 만족을 위한 볼거리 개발
하드웨어 정비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수학여행과 단체관광객 역사체험 교육프로그램 연계
	시정기능 활성화 시설	친구연인이 찾는 테마관광지와 관광코스 개발
	문화관광 시설 기반 시설	외국인이 찾아오는 세계적역사관광지 코스개발
휴먼웨어 개발	부여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 역량강화 상인조직 및 부여 전통시장 활성화 협의회 운영 경역역량강화 방안	지역이미지와 스토리텔링 서동 이야기를 관광지원화한 디자인 모티프

17



[그림 3] 관련계획 현황도

18

4) 사업추진 현황

- 부여군은 백마강 수상관광 선도 및 굿드래 제2창업기반 구축이라는 비전하에 백제문화의 역사성 회복과 문화경쟁력 세계화 사업 및 아름다운 금강을 활용한 지역발전 성장동력의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도심상권활성화 구역에 관련된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시민신동업문학관 개관(H/W)
 - 문화시설 확충사업으로 부여읍 동남리에 시민신동업문학관을 개관하여 신동업문학제와 병행 연계 행사로 개최 시너지 효과 창출
- 제58회 백제문화제(S/W)
 - 백제 문화제를 통해 백제문화제 역사의 계승 발전과 백제문화 선양으로 백제 브랜드 제고
 - 굿드래 및 시기지 일원에 1400년전 대백제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9일간 추진
- 시대적 트렌드에 부합하는 선진 관광 진흥(S/W)
 - 민간주도 관광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광상품을 개발
 - 역사문화+생태+강변문화를 연계한 '길' 관광상품 개발
 - 길, 자전거도로, 역사문화를 아우르는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맞는 홍보·마케팅(S/W)
 -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한 지역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 극대화
 - 명사와 함께하는 역사문화 탐방, 홍보물 제작, 온라인 및 지하철 광고 캠페인, 교육지원청과의 협조체계 강화 등
- 선진 주차질서 확립(S/W)
 - 주차장 공간 확보 및 주차장 질서확립으로 선진 교통질서 확산
-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S/W)
 -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부여상권을 보호
 - 애용운동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 경관·공공디자인 인프라 구축(S/W)
 -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관리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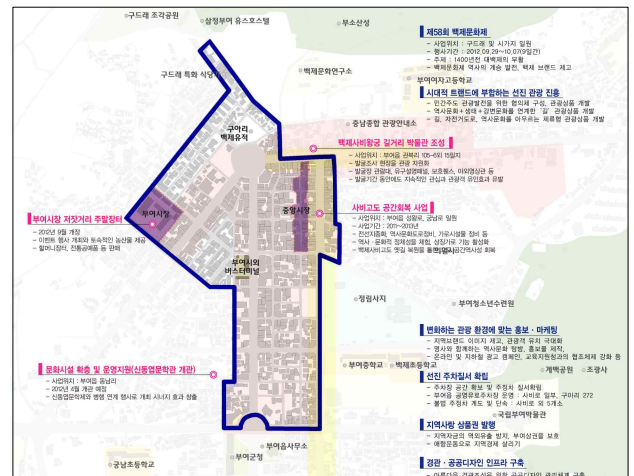
19

○ 백제사비왕궁 길거리 박물관 조성(H/W)

- 부여읍 관북리 105-6의 15필지에 발굴조사 현장을 관광 자원화하여 문화재의 중요성 인식 제고
- 발굴장 관람대, 유구설명패널, 보호펜스, 야외영상관 등
- 발굴과정을 일반에게 공개 전시함으로써 발굴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인 외부의 관심과 관광객 유인효과 유발

○ 사비고도 공간회복 사업(H/W, 2011~2013)

- 부여읍 성왕로, 궁남로 일원에 전선지중화, 역사문화도로정비, 가로시설물 정비 등
- 향후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제련하고 상징가로로서의 기능 활성화, 백제 사비고도 옛길 복원을 통한 고도 공간역사성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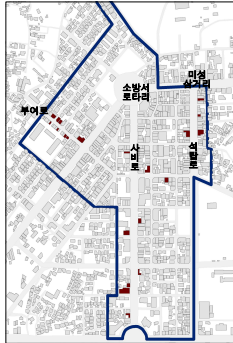
[그림 4] 사업 추진현황도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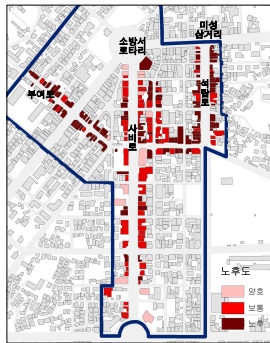
24

[2] 공점포 현황

- 공점포는 주로 부여시장 인근 상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사비로 및 석탑로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앙시장에는 공점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공점포는 많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상점의 영업 부진으로 인해 영업을 불규칙적으로 하거나, 영업유무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상점들도 많이 있었음



[그림 7] 공점포 현황



[그림 8] 노후도 현황

[3] 노후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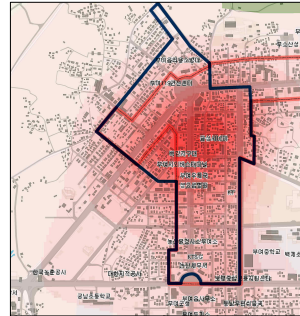
- 상권활성화 구역의 도로변에 입지된 상점의 노후도를 살펴보면 사비로~부여전통시장 진입을 위한 '부여로'에 입지된 상점들이 매우 노후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미성삼거리~정림사지 부근의 석탑로 일대의 상가들도 노후도가 심각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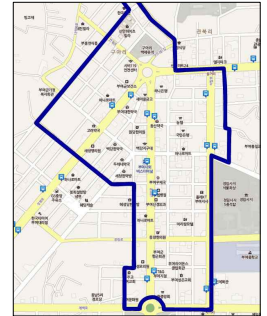
- 사비로에 입점된 상점들은 양호하거나 보통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낡았지만 전통이 있는 상점들이 전무하기에 전통성을 찾을 수 있는 형태의 업종변경 및 리모델링이 시급한 실정

[4] 상가 밀집도 현황

- 상가밀집도 현황 분석 결과 사비로를 중심으로 한 중앙시장 및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도출됨
- 부여전통시장 부근은 상가 밀집도가 낮게 나타남



[그림 9] 상가 밀집도 현황



[그림 10] 버스 정류소 현황

[5] 버스 정류소 현황

- 성왕로와 사비로, 석탑로를 중심으로 버스정류소가 입지되어 있음
- 중앙시장의 입구 부근에는 버스정류소가 있으나, 부여전통시장 입구에 버스정류소 부재
 - 부여전통시장의 경우 현재 주요 고객층이 노인층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인근에 버스정류소 부재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

26

[6] 유동인구 현황

-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조사한 유동인구를 살펴보면, 미성3거리가 약 1,000명(12시~13시)으로 조사되었음
 - 이는 미성삼거리 인근에 부소산성 및 충남종합관광안내소, 부여 중앙시장 등이 입지되어 있기 때문
- 시외버스터미널 부근도 약 700명(12시~13시)의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정림사지와 인접한 KT 부여지사 조사지점과 사비로와 인접한 중앙한의원 조사지점은 약 250명(12시~13시)으로 조사되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부여읍 도심의 유동인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11] 유동인구조사지점

[표 9] 유동인구 현황

조사지점 ❶	시외버스터미널 앞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계
조사일자	2010-10-17 일요일										
조사시간	남자					여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12시~13시까지	71	37	35	51	81	118	42	46	49	102	632
19시~20시까지	44	60	41	62	42	52	73	62	70	37	543

조사지점 ㉔	KT 부여지사 앞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계
조사일자	2010-10-30 토요일										
조사시간	남자					여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12시~13시까지	35	11	20	30	26	32	7	25	33	19	238
19시~20시까지	32	19	31	28	18	17	11	36	18	22	232

조사지점 ㉓	중앙한의원 앞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계
조사일자	2010-10-30, 토요일										
조사시간	남자					여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12시~13시까지	22	7	37	41	27	18	6	29	32	31	250
19시~20시까지	25	15	36	33	25	19	14	41	30	16	254

조사지점 ❶	미성삼거리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계
조사일자	2010-10-17 일요일										
조사시간	남자					여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12시~13시까지	55	33	57	95	71	81	26	473	49	54	994
19시~20시까지	47	40	101	89	56	30	32	78	71	40	584

자료 : 소상공인진흥원 자체조사 2010.12 기준, 단위 : 명

27

28

3. 개발수요 및 의식조사

- 상인회별 인터뷰를 통해 개발수요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였음
- 주요인터뷰 내용으로는 도심상권활성화의 저해요인, 활용가능한 지역 자원, 향후 발전방향, 주민숙원사업, 롯데리조트에 의한 영향, 계획의 주요대상, 상인의 참여의지등임

■ 도심상권활성화의 저해요인

구 분	내 용
도심 상권 활성화 저해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시군의 대형마트 출점 - 상점이 다양화되지 않아 구색이 맞지 않음 -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인구 유입요소 없음 - 문화재로 인한 심한 규제(신축 어려움) - 시내에 불거리 부족 - 중심지가 외곽에 모든 요소가 집중되어 있음 - 주차공간 등 기반시설 부족 - 중앙시장의 경우 현대화시설의 노후화 - 부여시장의 경우 진입 도로 미개설 및 시장의 위치를 인지하기 어려움 - 부여시장의 경우 문화적 전통적 요소 부재

■ 활용가능한 지역자원 및 발전방향

구 분	내 용
활용 가능한 지역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요소(궁남지, 청림사지, 부소산, 백제문화제 등) - 특화된 브랜드 및 다양한 농특산물(인삼, 수박, 방울토마토, 버섯, 밤, 참삼 등) - 오픈스페이스 및 공원 등이 많이 조성 - 연일밤 등의 특화된 먹거리
발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객을 유인하여 지역활성화 필요(유인 요소 도입) - 부여시장과 중앙시장 그리고 상권의 연계 및 통합 - 문화와 전통, 역사가 살아있는 도심상권활성화 방안

29

■ 주민 숙원 사업

구 분	내 용
도로 및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공간 확보(공영주차장에서 시장 주차권 사용) - 부여시장의 진입로 공사 및 조항을 설치 - 백제역사문화재현단지에서 부여도심까지의 접근성 제고 - 문화재로 인해 다리 축조가 어려울 시 수륙양육차 등 다양한 방안 모색
공간적 특화 및 상권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시장에 체험관 및 전시관 조성 - 거리 및 공간적 특화를 통해 불거리 창출 - 부여전통시장과 중앙시장의 차별화 필요 : 부여전통시장은 문화형시장 조성 - 5일장의 활성화 - 중앙시장과 부여시장을 연계 방안 모색
아이덴티티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마케팅 방안 모색 - 방문객 유인 요소 조성 - 먹거리/불거리/즐길거리 창출 -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조성 - 부여다움을 느낄 수 있는 거리 조성 및 상점가 개발 - 시장 간의 연계, 다양한 불거리, 주말 야간 포장마차 촌 조성, 어린이들이 찾을 수 있는 상권 조성
방문객 유인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상권을 경유할 수 있는 관광코스 - 정기적 길거리 공연을 통한 방문객 유입 방안 모색 - 먹거리 개발 및 교육 - 롯데에서 일본 수학여행 코스 연계 계획 → 한국적인 먹거리 개발 필요 - 백제만의 기념품 판매 및 문화상품 개발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가 매니저 고용으로 인한 통합적이고 단계적인 상권활성화 추진 - 상인회를 연합할 수 있는 조직 필요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완화 - 롯데리조트와의 상생발전(놀이공원을 도심내에 조성) 및 차별화 방안 필요 - 방문객이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 조성

30

■ 부여 도심 주변 개발로 인한 영향

구 분	내 용
부여 도심 주변 개발로 인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재현단지를 방문자가 부여 도심으로 유입되지 않음 - 부여 시내에 유인요소가 없기 때문 - 부여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으나 입구의 이정표 및 최단도로 미비로 접근성 떨어짐 - 롯데리조트 조성시 부여도심의 쇠퇴 더욱 심각 - 도심으로 유입할 수 있는 요소를 조성하기 위해 롯데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요청 - 롯데리조트와의 차별화 필요

■ 부여상권활성화 계획 수립의 주요 대상자

구 분	내 용
계획 수립의 주요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상권이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층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젊은 세대의 방문 유도가 필요하며 정기적으로 어린이들이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시장을 방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방문객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 요소 개발 - 여행사를 통한 단체 방문객 유입 방안 필요

■ 외부인이 방문하지 않는 원인

구 분	내 용
외부인이 방문하지 않는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입요소 없음 - 차별성 없음 - 유입 도로 인지 어려움

31

■ 상인의 참여의지

구 분	내 용
상인의 참여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5개 상인회는 단합이 되지 않으며, 상인회 주도로 활동을 한 바 없음 - 홍보를 통한 동참, 유도 방안이 필요하고 상인 교육 등을 통한 역량 강화 필요 - 상인회의 활동에 대한 사업 결정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의향 있음

1) 소결

(1) 현황 종합분석

- 여건 변화 및 역사적인 장소성으로 인해 부여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지만 부여 도심으로의 유입은 없음
 - 방문객을 유입할 수 있는 관광상품 및 축제 등을 통한 다양한 역사문화적 요소 도출 필요
- 부여는 백제고도이나 실제로 도심에서는 전통성을 느낄 수 있는 요소 전무
 - 부여 도심 주변에는 많은 역사적 장소가 조성되어 있으나, 부여 도심에는 역사성 및 전통성을 느낄 수 있는 상점가 및 상품, 장소가 없음
- 현재 부여군민만을 위한 상권이기에 인구 감소로 인해 상권 쇠퇴 심각
 - 부여상권은 부여군민이 주요 고객층이기에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의해 더욱 심각한 상황 직면
 - 이에 방문객 유도를 위한 요소 도입과 함께 2개 시장의 공간적 특화방안 및 성격 재 고찰
- 상점가의 노후화가 심각
 - 건축규제로 인해 건물 신축이 어렵기에 리모델링을 통해 매력 있는 도심상권 창출 필요

32

- 넓은 도로와 잘 정비된 보도는 있으나, 가로로 정체성 부족
 - 보도와 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으나, 가로 및 상점가에 정체성이 전무
 - 건물 앞 도로변에 불법 주차차로 인해 혼잡
- 전체적으로 주민 및 방문객을 위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결여되어 있음
 - 정체성을 줄 수 있는 스토리텔링 요소와 결합 필요
- 상인회의 역량 부족
 - 상인회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자구적 노력 및 상점가를 살리기 위한 시도를 한 경험이 없음

[2] 해결 방안

- 부여전통시장과 중앙시장의 기능 특화방안 모색
 - 부여전통시장의 주요 타깃은 방문객, 중앙시장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에 맞는 기능 재부여
- 부여만의 아이덴티티를 창출할 수 있는 요소 발굴
- 역사 거리 조성으로 '다시 찾는 부여' 방안 모색
- 상인의 역량 강화로 상인주도의 도심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

33

4. 상권활성화 사업 사례

- 2011년 5월 중소기업청은 '상권활성화구역' 시범 지자체 6곳을 선정하여 지원
- 지역상권의 크기, 특성 등에 따라 3년에 걸쳐 주차장 설치, 특화거리 조성 등 기반 인프라 구축과 캐릭터·디자인개발, 이벤트 또는 문화축제 개최 등 경영개선사업을 지원

1) 경기도 성남시

- 성남시는 상권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 상권활성화 재단'을 설립
- 주 사업은 태평역~숯골사거리로 이어지는 30만5천㎡ 수정구 상권을 육성하는 것으로 46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수정로 이면도로를 3개 구역으로 구분해 테마를 살린 상권 조성
- 세계 길거리 푸드타운, 태평동은 전통시장 저작거리, 신흥동은 문화거리 및 아름다운 풍경거리로 기반 인프라 및 현대·중앙시장의 통로구간은 가로환경정비사업을 겸한 아케이드를 설치해 이동 편의 도모
- 주차공간 확충차원에서 수정북로 태평동 일대에 2015년까지 165면의 공영주차장 건립
- 브랜드 개발, 모바일 웹 구축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상인대학 개설, 상품 및 점포개발지원, 창작예술 및 주민참여시장 운영, 우수점포 발굴 및 마케팅사업지원 추진
-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 상인,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및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민·관·학이 결합된상권 활성화 도모

34

2) 강원도 동해시

- 동해시는 인구감소 및 상권위축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발한구(舊)도심권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동해중앙시장 상권관리기구' 설립 운영
- 동해중앙시장 상권활성화사업은 2014년까지 총사업비 77억원(국비 53억, 지방비 24억). 기반인프라구축 사업비는 국비 60%, 지방비 40%를 분담하고, 경영개선사업비의 경우 지방비 부담없이 국비 100%(17억원)가 지원
- 상권관리기구의 주요 사업으로 고객 주차장 조성, 특화거리조성, 핵심점포 유치, 고객문화센터 건립, 캐릭터 및 디자인개발, 이벤트 행사, 상인 교육 등
- 사업구역내 주차장 확충, 고객문화센터 건립, 특화거리 조성사 등을 통해 고객들의(관광객 포함) 접근성·편의성 향상
- 다양한 경영개선사업으로 집객 포인트 마련, 유동객 창출을 통한 상권 활성화 선순환 동력 확보
- 지역문화 홍보 및 고객들의 체류시간 연장을 통한 매출증대 기여
- 지역내 관광자원과 연계 시너지효과 기대

3) 충북 청주시

- 청주시는 정감있고 활력 넘치는 육거리·성안길 상권활성화를 비전으로 전통시장과 인근 상가를 연계 지원해 새로운 '지역커뮤니티' 공간 창출
- '온몸으로 이룬 정성 고객에게 기쁨준다', '하나로 뭉친 마음 신뢰로써 보답된다', '새로운 미래혁신 경쟁력의 초석된다', '정성들여 쌓은 노력 으뜸 상권으로 거듭난다' 라는 세부 실행 목표 설정
- 4년간 시설 및 경영개선을 위해 123억원을 투입하여 고객지원센터 건립, 공연무대 설비, 상인카페 조성, 거리문화공연, 시장체험교실 등 다양한 이벤트와 고객유입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 계획

35

4) 서울 마포

- 9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마포=갈비'가 연상되는 브랜드 개발뿐만 아니라 대표적 지역축제인 용강 음식문화축제와 도화 복사골축제의 활성화, 디자인 거리 이미지 제고 등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 도화·용강동 상권을 서울의 대표적인 음식 명물거리로 육성
- "문화와 전통의 맛이 어우러진 활력이 넘치는 상권"의 성공 모델 추진
- 도화·용강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의 기본 방향은 문화가 있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통한 글로벌 문화 환경 및 관광 명소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마련, 상가주민의 자생력 강화 등을 통한 사람이 모이는 상권 환경 조성
 - 경의선 지상부지 공원화사업과 한강공원을 연계하는 녹지축의 관광코스 조성, 도화동 복사골 공원과 용강동 삼개공원에 상설무대 조성, 마포갈비의 브랜드화, 한국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외국인 방문코스 개발
 -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과 탄남의 광장 조성, 자전거도로 설치, 도화동 주차발딩 외벽 미디어 설치

5) 부산 동구

- 부산 동구는 명품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해 조방 상점가와 자유시장을 연계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신청
- 교통체계 정비, 문화거리·추억거리, 동천둘레길 조성 등의 사업 계획 추진
-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으로 과거 화려했던 조방 앞의 명성을 되찾고 명품도시 동구를 재창조

36

6) 경남 창원

- 경남 창원에는 마산합포구 오동동·창동·어시장 일대 창동통합상가, 어시장 맞은편 창동 입구 수납상가, 오동동상인연합회 관할 시장, 마산어시장, 어시장주차장 뒤편 정우새어시장, 부림시장 등 6개 시장 51만 9486㎡의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하여 국비 90억원과 지방비 30억 투입
- 'The M.A.S.A.N(the Memory of Art, Sense, Aqua, Nature)' 을 비전으로 창동은 Art(예술), 오동동은 Sense(감각), 어시장은 Aqua(물), 부림동은 Nature(자연) 등 테마별로 사업 구성
- 상권활성화구역 사업은 기존 개별 시장 단위의 지원에서 탈피해 전통 시장을 중심으로 상권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총 예산은 국비 88억원, 지방비 30억원 등 118억원이며, 시설현대화사업에 100억원, 경영개선사업에 18억원 등이 투입
- 시설현대화 사업으로는 오동동 소리길(재즈거리조성사업은 100m 구간)에 걸쳐 소리조형물, 일루미네이션, LED 조명, 캐노피 전광판, 상징게이트 등), 부림시장 디자인길 조성, 어시장·창동 아케이드 설치, CB(Community Business)센터 조성, 고객 휴게문화공간 마련, 쌈지공원 설치, 부림시장 디자인아트센터 조성 등 추진
- 경영현대화 사업은 디자인 레지던스 사업, 상인교육 아카데미 사업, 문신 문화체험 프로그램, 쌈지공원, 탁아시설 운영 프로그램, 상권활성화 축제 등

7) 소결

- 지역성, 문화성, 역사성을 고려한 모델을 발굴하고 자생력있는 운영체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
-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을 테마로 한 디자인 도입 및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공간 창출
- 사업지원연도뿐 만 아니라 사업지원연도 이후에도 자생적으로 지속적

37

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 수립

- 여건변화에 대비한 도심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토대로 한 지역경제 발전 계획 수립
- 방문객 유입을 위한 지역 정체성 제고
- 상권별 개별 사업이 아닌 전체 상권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하는 도시 공간 전체적 차원의 계획
- 도시재생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특화거리 조성 등을 통해 방문객들의 체류시간과 차량중심이 아닌 도보중심의 계획
- 지역과 전통시장간의 공생발전 모델 수립
- 지역의 독특한 문화가 방문객들에게 인지되어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형성시키고, 이를 통해 선순환적으로 재방문할 수 있는 계획 수립
- 독창적인 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상권 활성화 관리기구의 수익구조 창출
- 상인회 조직의 역량강화 및 상인주도의 계획 추진 방안

38

[표 18] 상권활성화 선진사례(1)

구분	경기도 성남	강원도 동해	충북 청주
주요 내용	지역 생활밀착형 상점가 형성, 지역문화 형성의 장으로 재생, 지역아케임을 통한 지역명소 만들기	주차장, 고객문화센터 조성 등의 기반시설 설치사업과 함께 대표상품개발, 상인교육 및 공동디자인개발 등 경영개선사업	고객문화센터, 주차장 등 기반인프라 구축 및 이벤트 지원 등 경영개선사업
시설 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면도로 특화사업 랜드마크사업 점포개발사업 시민편의증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포 육성사업 주차장 조성 사업 에그 프라자 조성 사업 배송차량 및 먹거리장터 시설 운영 사업 대중교통접근성 개선 사업 시장가로접면 정비 사업 탁아소·미니도서관 및 커뮤니티 조성 사업 점포별 관리번호 부여 및 상가 안내도 설치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케이드보수 물길조성사업 공연무대설치 태양광설치 랜드마크조성(미디어폴 또는 LED전광판) 고객지원센터 건립 멀티지원센터 건립 미니공원(고객쉼터)
경영 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일 상권 통합브랜드 구축 신활력증진 스마일 스토리빌리지 육성 아케임혁신사업 지역 커뮤니티육성 세계 길거리 푸드타운 기타타운 상권관리 지역 커뮤니티육성 세계 길거리 푸드타운 신활력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표먹거리 발굴을 위한 요리경연 대회 사업 대신맨(Instead Service) 사업 예술·문화 창조 사업 공동디자인 개발 사업(캐릭터, 브랜드, 디자인 요소) 기업과의 자매결연 사업 상권활성화 한국형 모델발굴용역 공동사업비 LETS(Local Environment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 Trading System)사업 - 텃밭 친환경 농산물(農山物) 직거래 사업 위탁점포 운영 사업 먹거리장터 운영 사업 창업인큐베이터(에비상인육성프로그램) 사업 동해지역관광지 연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커뮤니티 네트워크구축사업 상인경영력 재고사업 빈점포 활용 커뮤니티 공간 창출 유입인구 확대 프로그램 상권별 특화 프로그램 공동별 먹거리 프로그램 택배배송 센터 운영 장보기대행서비스 운영 고객지원 서비스 운영 상권 활성화 한국형 모델 발굴용역 창업공간 풀리지 습 프로모션 홍보물 제작 브랜드 및 캐릭터 제작
상권 관리 기구	상권관리기구	상권관리기구 운영 사업	상권관리기구 운영 사업

39

[표 19] 상권활성화 선진사례(2)

구분	서울 마포	부산 동구	경남 창원
주요 내용	'마포갈비' 브랜드 개발, 문화커뮤니티 벨트 조성을 통한 2014년까지 글로벌 관광 문화거리 계획	교통체계정비, 특화거리 조성, 캐릭터 및 디자인 개발, 이벤트 지원 등	마산 원도심 재생과 연계하여 4개 상권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시설과 운영프로그램 도입
시설 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상징물 및 LED 야간조명을 활용한 가로 정비 스토리텔링 유형화 사업 상인 교육장 및 협의회 공간 마련 축제 및 행사 장소 마련 구역별 특성을 살린 골목문화(가로 정비 및 이미지 계획) 도정로 정비 계획 지역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관 건립 및 운영 융합·도화동 상징가 연결부 상징성 부여 및 연결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화거리조성 전신주 지중화 쌈지공원 정비 종합안내표지판 설치 특화거리 설계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동동소리길 부림시장LED 어시장 아케이드 창동아케이드 CB센터조성 고객휴게문화공간 쌈지공원 부림시장디자인아트센터 창동오동동물길공원 창동빛길 부림시장디자인길 수납상가
경영 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토리 발굴 및 적용 사업 지역 연계 및 동아리 육성 프로그램 축제 및 상인콘서트 이벤트 개최 상권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상권활성화 한국형 모델발굴용역 인력공동관리 및 양성프로그램 지역 마일리지 서비스 스토리텔링 기념품 제작 및 판매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디자인 개발 문화축제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노점상 양성화 홍보용 차량 운영 안심귀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영차량 운영 부림시장디자인아트센터 체험 공동디자인개발 문신문화체험 프로그램 탁아시설 운영 프로그램 상인문화동아리 주말상설문화 상권활성화 축제
상권관리기구	상권관리기구 유지 및 운영	상권관리기구 운영사업 상권활성화 한국형 모델사업 연구용역	상권관리기구 운영 사업 상권활성화 한국형 모델 발굴용역

40

5. SWOT 분석 및 기본구상

1) SWOT 분석

(1) 강점요소

- 함덕읍은 지역의 농특산물(버섯, 방울토마토, 수박 등)이 풍부하고 이를 자원으로 한 굿뜨레라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있음
- 백제고도이며 부소산, 공남지, 정남사지 등 많은 문화관광자원 보유
- 부여군수 및 상인, 공무원등의 관심이 높음
- 문화관광형 시장 국비사업 추진 등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 및 지속적인 사업 추진

(2) 약점요소

- 부여도심상권에는 다양한 지역자원 및 문화와 연계된 부여다움에 관한 정체성이 부족
- 도심상권의 요소인 전통시장의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 및 불법 주정차 심각
- 2개의 시장과 상권별 공간적 아이덴티티 부재
- 5개 상인회의 역량 부족 및 자생력이 저조하고, 상인회간의 소통 부족
- 문화재로 인한 개발제한

(3) 기회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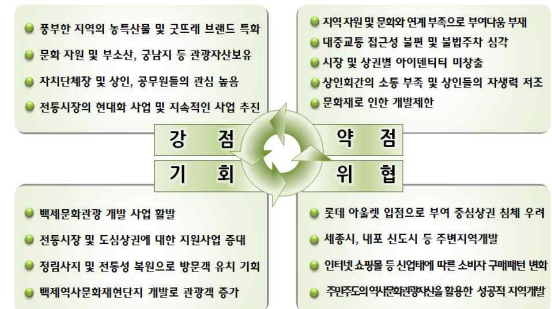
- 도심주변지역에 백제문화관광에 대한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백제역사문화재현단지 개발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음
- 국가차원에서 전통시장 및 도심상권에 대한 지원사업 증대

41

- 정림사지 및 역사문화에 관한 전통성 복원으로 방문객 유치 기회 높음

(4) 위협요소

- 롯데 아울렛 입점으로 부여 중심상권 침체 우려
- 세종시와 내포 신도시 등 주변지역개발로 인구 유출 현상 발생 가능성 높음
- 인터넷 쇼핑물 등 산업태에 따른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로 도심상권 방문객 감소 현상 발생
- 타시군에서 역사문화관광자산을 활용한 지역개발 노력으로 방문객 유치 전략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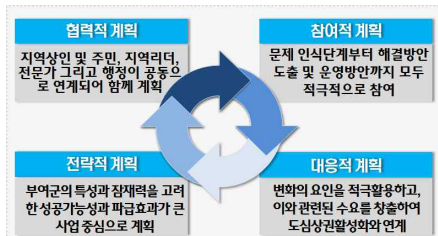
[그림 12] SWOT 분석

42

2) 기본 구상

(1) 접근방법

- 본 연구는 협력적 계획, 참여적 계획, 전략적 계획, 대응적 계획 하에 계획을 추진하였음
- 지역상인 및 주민, 지역리더, 전문가 그리고 행정이 공동으로 연계되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계획 수립
- 문제 인식단계부터 해결방안 도출 및 운영방안까지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 추진
- 부여군의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한 성공가능성과 파급효과가 큰 사업 모색
- 역사문화재현단지 조성 및 롯데리조트등 주변의 변화 요인을 적극 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수요를 창출하여 도심상권활성화와 연계 방안 모색



(2) 사업도출방법

- 총발연, 전문가, 부여군, 부여상인 및 주민, 지역리더의 공동 참여 학습 및 협력 연구
- 사례조사 : 국내외 상권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 및 우수 사례 조사 분석
- 현장 및 여건 조사 : 통계자료 및 현장조사를 통한 현황 및 여건 분석
- 기존사업 및 계획 분석 : 실효성을 통한 부여군 기존 사업 및 계획사업 간의 연계방안 모색

43

- 설문조사 :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 공무원, 상인 등의 의견 수렴
- 인터뷰 조사 : 포커스 그룹 개별 인터뷰를 통한 내재되어있는 갈등 및 문제점 인식
- 토론회 : 상인(5개 상인회 대표), 전문가, 공무원간의 토론회를 통한 환경분석, 문제점 및 핵심사업 도출

※ 토론회(2012.2.21)

- 상인(5개 상인회 대표), 전문가, 공무원간의 토론회를 통한 환경분석, 문제점 및 핵심사업도출



※ 상인회별 인터뷰(2012. 3)

- 중앙시장 상인회, 공남로 상인회, 부여소상공인회, 부여전통시장상인회



44

[3] 계획의 비전 및 목표

가. 비전

- 새로운 상생공간의 창출을 통한 활력 넘치는 상권 만들기
 - 농촌과 도시, 전통과 현대, 지역주민과 방문객, 역사·문화기능과 관광기능, 지역상권간의 상생을 기본 전제로 하여 활력 넘치는 상권 조성

나. 계획 목표 : 5대 상생공간의 창출

- 목표 1 :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공간 창출
 - 농촌의 생산자와 도시의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구뜨레 농산물을 농민들이 직접 판매하고 도시민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거점지역으로 육성
 - 지역생산, 지역소비의 로컬푸드 활성화로 선순환 농식품체계 실현
- 목표2 : 전통과 현대가 상생하는 공간 창출
 - 부여 전통의 이미지와 현대의 이미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
 - 부여 전통의 이미지를 주태마로 설정하되 주요 가로조성과 상가건물은 공공디자인 등을 접목한 현대적인 이미지로 재정비
 - 부여 전통의 이미지 부각으로 방문객을 유인하고, 현대적인 이미지로 방문객의 성향은 맞는 다양한 편의·서비스시설 제공
- 목표3 :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상생하는 공간 창출
 - 지역주민과 외부 방문객이 이용하고 교류하는 공간으로 조성
 - 지역주민의 기초생활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객이 요구하는 새로운 소비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상권으로 재도약
 -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이벤트 및 축제개최 등으로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즐기고 교류할 수 있는 여건 마련

45

○ 목표4 : 역사·문화기능과 관광기능이 상생하는 공간 창출

- 부여 및 도심의 역사·문화기능을 정비하고 재발견하여 관광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중심시가지 내 또는 인접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재정비하고 개발하여, 중심시가지와 연계하거나 기능을 일부 도입함으로써 관광객과 방문객을 유치
- 중장기적으로는 중심시가지를 백계문화의 체험 및 학습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 목표5 : 지역상권이 상생하는 공간 창출

- 특정한 상권의 생존을 위한 경쟁구도가 아닌 모든 상권이 함께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단일 상권의 형성으로 목표1~목표4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대응 및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상권 형성
-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여 함께 노력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활력 있는 중심상권 만들기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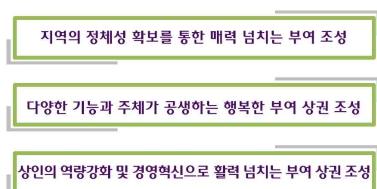


[그림 19] 비전 및 목표

46

[4] 추진전략

- 전략 1 : 지역의 정체성 확보를 통한 매력 넘치는 부여 조성
 - 부여만의 자원을 활용한 전통 히스토리 존 조성
 - 백제고도문화가 방문객들에게 인지되어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형성시키고, 이를 통해 선순환적으로 재방문할 수 있는 매력있는 상권 조성
 -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전통성 넘치는 도심 창출
- 전략 2 : 다양한 기능과 주체가 공생하는 행복한 부여 상권 조성
 - 공간적 기능 특화 및 상권 연계를 통한 상권활성화
 - 중앙시장, 부여전통시장과 상가가 공생하는 부여 상권 조성
 - 방문객들의 체류시간을 높이고, 차량중심이 아닌 도보중심의 계획
 - 부여의 지역개발 계획과 연계한 상권활성화 계획 수립
 - 상권별 특화로 상생하는 상권 조성 및 전체 상권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하는 도시 공간 전체적 차원의 계획
- 전략 3 : 상인의 역량강화 및 경영혁신으로 활력 넘치는 부여 상권 조성
 - 소프트웨어형 상권활성화 프로그램 발굴로 주민주도의 아름다운 상권 만들기
 - 상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적, 자생적 운영체계 구축하여 사업지원연도 뿐 만 아니라 사업지원연도 이후에도 자생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 수립
 - 독창적인 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상권 활성화 관리기구의 수익구조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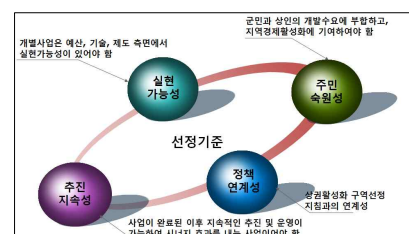


[그림 20] 3대 추진전략

47

[5] 사업의 선정기준

- 실현가능성
 - 사업선정은 예산, 기술, 제도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함
 - 도심상권활성화 구역지정은 최대 국비 60억 지방비 40억의 예산의 범위가 있고, 부여군은 타 시군과 다르게 백제고도로인해 문화제로 인한 개발제한 등이 있기에 이를 고려한 사업 선정 필요
- 주민 숙원성
 - 군민과 상인의 개발수요에 부합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함
 - 상권의 주체가 상인 및 주민이기에 주체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사업 선정으로 사업 추진의 용이성 및 효과 기대
- 추진 지속성
 - 사업이 완료된 이후 지속적인 추진 및 운영이 가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사업 선정
 - 지금까지의 계획은 지속성이 결여된 사업이었기에, 사업 추진 후 많은 효과를 보지 못했음
- 정책 연계성
 - 상권활성화 구역 선정 지침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정책적 의지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도출
 - 또한 기존의 부여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과 일치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계획 수립



48

2) 사업명 : 다양한 기능과 주체가 공생하는 행복한 부여상권 조성

(1) 목표

- 특화된 상권조성 및 연계로 공생하는 도심 창출
 - 각 상권의 특성과 기능을 차별화 할 수 있는 테마를 발굴·특화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전체 도심상권을 연계시킴으로써 함께 공생하는 공간 조성

(2) 사업내용

- 다양한 계층을 유인할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
 - 정기적인 문화공연 및 이벤트 개최를 통하여 남녀노소, 유년에서 노년층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
 - 다양한 휴게시설 및 쉼터 조성으로 방문객에게 보다 친숙한 공간을 제공하고 특히 젊은 층의 수요에 맞는 공간으로 조성
 - 바닥이나 담벽에 다양한 캐릭터 슈퍼그래피클 도입하여 어린이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함
- 쾌적한 상권을 위한 아케이드 보수 및 효율적 주차장 운영
 - 중앙시장의 노후화 되고 파손된 아케이드를 보수하여 깨끗한 환경 조성
 - 현재의 주차장 운영방안을 개선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
- 테마가 있는 공간 조성 및 야간 먹거리 장터 운영
 - 부여로 부분의 부여시장 인접 건물을 매입하여 공공스페이스로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 개최
 - 부여시장과 인근의 점포의 업종을 한우로 특화시켜 부여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한우를 구매하고 먹을 수 있는 한우특화타운 조성
 - 부여시장 식당을 중심으로 주차장 공간에 야간 포장마차 등을 운영함으로써 인근 롯데리조트 및 관광지에 체류하는 방문객을 유인하는 야간 먹거리 장터로 운영

53

- 부여시장 공점포를 동아리방, 주민노래교실 및 회의장으로 대여하여 유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 부여 저잣거리 주말장터 운영

- 전통 재래시장의 맛과 멋, 고향의 예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할머니 장터를 운영하여 참여자가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 산나물, 산약초, 민물어패류 등을 판매하도록 함
- 평소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의류, 도서, 장난감 등 중고품을 직거래 할 수 있는 알뜰가정 벼룩시장 운영
- 손수 직접 만든 질품공예품, 목공예품 등을 전시하고 판매 할 수 있는 공예품 전시·판매코너 운영
- 나라별로 특색 있는 음식을 직접 다문화 가정이 참여하여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다문화 음식체험거리 운영
- 농특산물을 생산한 작목별로 가지고 나와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굿뜨레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장 운영

○ 굿뜨레 농산물을 활용한 특화먹거리 개발

-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굿뜨레 농산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농식품 및 먹거리를 개발함으로써 주변 방문객 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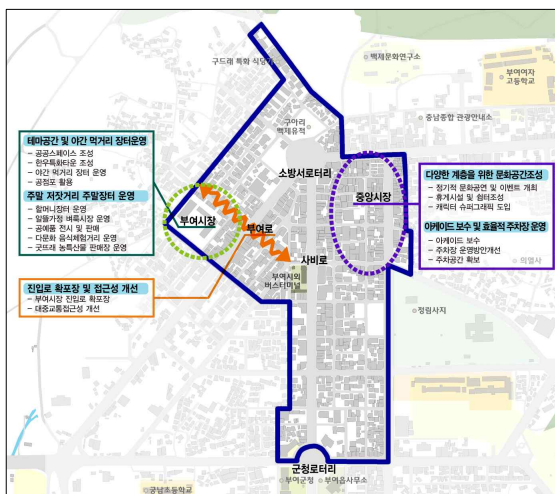
○ 부여시장 진입로 확포장 및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 대로에서 부여시장 진입로를 확포장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시각적으로 개방된 공간조성
-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새로운 대중교통 노선을 개발하고 방문객이 손쉽게 각 상권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정류장 위치 개선

54

(3) 계획기간 및 추진주체

구 분	계획기간(연차)					주 체
	1	2	3	4	5	
○ 문화공간 조성						부여군, 상인, 주민
○ 아케이드 보수 및 효율적 주차장 운영						부여군, 상인
○ 테마공간 및 야간먹거리장터 운영						부여군, 상인, 주민, 전문가
○ 부여 저잣거리 주말장터 운영						부여군, 상인, 주민, 전문가
○ 특화먹거리 개발						부여군, 상인, 전문가
○ 진입로 확포장,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부여군, 전문가



[그림 23] 다양한 기능과 주체가 공생하는 행복한 부여상권 조성 사업 구상도

3) 사업명 : 상인의 역량강화 및 경영혁신으로 활력 넘치는 부여상권 조성

(1) 목표

- 상권을 형성하는 상인들의 내부 협력을 통한 역량강화 및 경영혁신
 - 지역 내 상인회를 중심으로 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도모
 - 지역 여건 및 경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상인들의 자생적 운영체계 구축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통한 방문객 유인

(2) 사업내용

○ 상인 협의회 결성 및 상권 관리 운영기구 제도 도입

- 각 시장별로 운영되는 상인회를 활성화시키고, 각 시장별 상권별로 결성되어 있는 5개의 상인회 모임을 정례화 함
- 상인 협의회는 부여 상권 측면에서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별 정보 공유를 통한 특성화 도모함
- 또한 시장별 부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함
- 상인 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권 관리 및 운영기구를 도입함
- 상권 관리 및 운영기구 운영 및 상인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시장 매니저 제도 운영

○ 다양한 이벤트 및 마케팅 방안 추진

- 정보 공유 차원 및 시장 정보 제공을 위한 시장 정보지를 발간하고, 공동 마케팅을 추진함
- 물품 구매를 위한 쿠폰 공동제작, 경품행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
- 점포별이 아닌 시장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비용 절감을 추진함
- 상권 차원에서 시장투어 코스를 만들어 관광객 모집하며, 부여사랑 상품권 발행과 연계하여 사업추진

55

56

○ 미래수요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미래 수요자인 지역 및 배후 대도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사생대회 및 글짓기 대회 등의 프로그램 개발
- 부여군과 지역의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수단으로서 행사 주최
- 발행되는 상품권, 시장 투어와 연계하여 전통시장 체험을 통한 어린이 경제교육을 실시
- 상품으로 지역 농산물, 부여 사랑 상품권 활용

○ 빈 점포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 추진

- 북카페, pc방, 회의실 운영을 통한 지역 주민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
- 상인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형태의 다양한 사업의 공간으로 활용

○ 전문가 멘토링 및 경영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경영상의 애로점을 해소하고 경영혁신을 위하여 교육 사업 및 지속적인 멘토링 추진
- 경영을 위한 소양교육, 상인들이 원하는 교육내용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 과정을 신설함
- 지역시장 및 상권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전문 경영컨설팅 지원
- 회계, 홍보, 마케팅, 세무, 자금, 정보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상담을 지원함
- 경영혁신을 위한 교육과 멘토링 사업은 주변 대학, 연구원 등의 전문가와 연계하여 진행

○ 부여사랑 상품권 발행

- 부여지역 전통시장과 개별 상점에서 유통 가능한 부여사랑 상품권 발행
- 롯데 부여 리조트, 백제역사재현단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상품권 유통방안 모색
- 롯데 부여 리조트 숙박객들에게 상품권 증정을 통하여 부여 전통시장으로 자연스런 관광객 유인
- 발행기관은 부여군, 판매 및 업무대행은 지역 농협,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을 통하여 유통
- 부여군에서 개최되는 축제등 다양한 행사시 부여사랑 상품권 활용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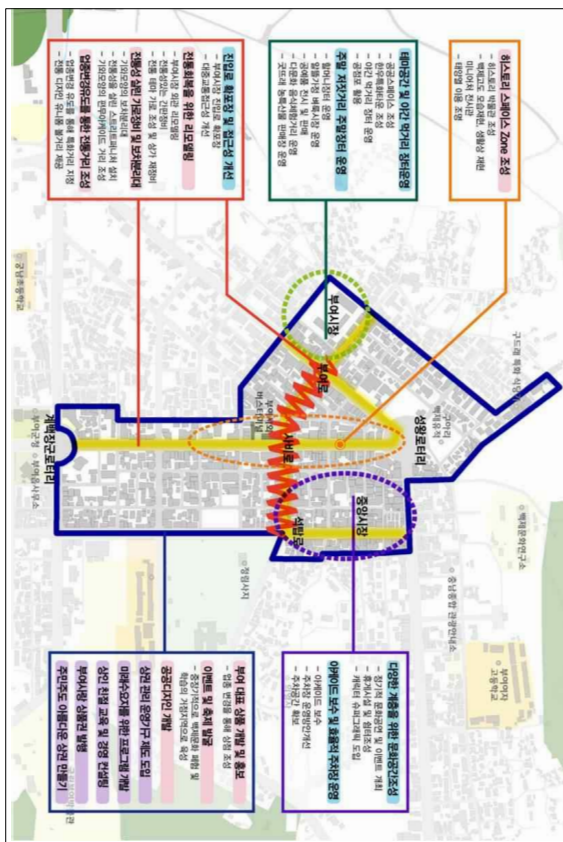
○ 주민주도의 아름다운 상권 만들기 추진

- 1상점 1화분 가꾸기 운동을 실시하여 사비로 가로 미관 개선
- 상점 앞 정비를 통하여 깨끗한 환경정비
- 주민주도의 환경캠페인 실시

[3] 계획기간 및 추진주체

구 분	계획기간연차					주 체
	1	2	3	4	5	
○ 상인 협의회 결성 및 상권 관리 운영기구 제도						부여군, 상인, 주민
○ 다양한 이벤트 및 마케팅 방안 추진						부여군, 상인, 주민, 전문가
○ 미래수요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부여군, 주민, 전문가
○ 빈 점포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 추진						부여군, 주민, 전문가
○ 전문가 멘토링 및 경영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전문가, 상인
○ 부여사랑 상품권 발행						부여군, 상인
○ 주민주도의 아름다운 상권 만들기 추진						부여군, 상인, 주민, 전문가

58



[그림 24] 종합구상도

59

지 정 토 론

김남룡(창원도시재생지원센터)
김항집(광주대학교 도시계획과)
류태창(시장경영진흥원)
이형복(대전발전연구원)

-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이기 때문에 많은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 따라서 부여의 도심재생은 지역자산인 역사문화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즉,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창조도시의 개념으로 도심재생 통한 상권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 이는 도시전체를 박물관화 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걸맞는 세부적 전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 창조계급이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도시문화산업을 주도하는 창조산업을 창출하고 창조산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임.
- 이에 따라 부여의 도심재생을 통한 상권활성화는 지역내 인구를 목표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타지역 사람들이 부여를 방문할 수 있도록 물리적 재생인 지역 인프라 구축과 함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재생인 지역 문화 프로그램 전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함.

부여의 도심재생을 통한 상권활성화 전략은

1. 도시전체를 박물관화 창조도시 지향 전략
 - 도시 전체를 박물관화하고 이에 따라 도심을 재창조하는 전략 필요
2. 역사성 있는 골목길 활용 도심재생
 - 도읍지이므로 많은 골목길이 존재할 것임

62

- 역사성 있는 골목길 활용하여 옛 향수가 뿜어 나오는 감성이 있는 도시로 탈바꿈해야 함
- 예를 들면 1500년 된 옛 성왕길, 계백장군 길, 등등

3. 도심의 빈점포활용 부여예술촌 조성 사업

- 도심에 산재해 있는 빈점포를 활용해서 창조적 문화를 생산하는 창조계급을 유치시켜 예술촌으로 개발해야 함.
- ex) 성왕 궁중문화예술촌, 백제문화 공예촌 등등

4. 적절한 행정적 지원

- 도심재생에 있어서 공공재와 같이 공공적 요소가 필요한 물리적 재생은 필요한 것이므로
-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함

5. 지역상인들의 희생정신 요구

- 도심재생을 통한 상권활성화의 최대 수혜자는 해당지역 상인들이므로
- 지역상인들의 희생없이 도심재생을 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음
- 지역상인과 함께하는 도심재생이 이루어져야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음을 의미.

1. 도심재생종합계획의 필요성

- 상권활성화나 시장리모델링 등 개별 사업만으로 도심재생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물리적 환경정비를 포함하여 도시경쟁력 강화 및 거버넌스 기반의 사회경제적 재생역량 강화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도심재생계획의 수립 필요



2. 도시특성에 맞는 다양한 재생사업 발굴

- 역사문화도시의 특성에 맞는 지역자원기반형의 도시재생사업 발굴
- 도시재생 거점지구(역사문화형)의 조성 고려

■ 사례 : 나주 도심융성 정비계획

- 특성화 거리
 - 동·서·남·북문로, 근대의 거리, 나주천변로 정비
- 근대건축물활용(레노베이션), 문화재 활용
 - 구금남금융조합, 구나주협동상회, 나주금융조합, 구나주경찰서, 구잠사주식회사
- 향토문화와 연계 활용한 관광 상품화 및 이벤트화
 - 나주 각종 유형문화재 등 모형 제작, 소규모 역사박물관 건립, 향토 음식의 관광 상품화



65

3. 역사문화도시의 특성을 살린 오감만족 도심재생

- 역사문화도시의 자원과 장소마케팅을 활용한 도심재생 및 도시관광 연계
- 지역문화자원의 복원과 오감만족을 연계한 도심관광 상품 개발

■ 사례 : 나주 읍성트네상스 축제 구상, 전통음식문화(홍어, 곰탕), 천연염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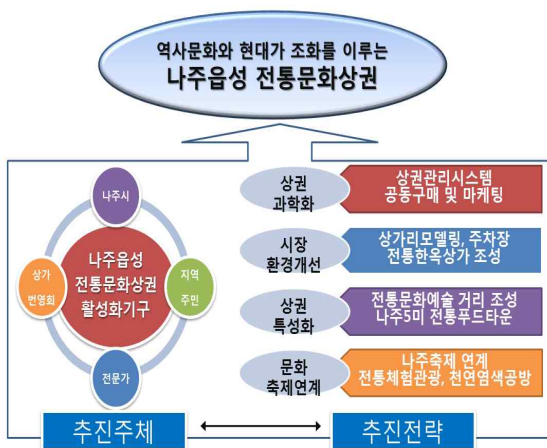
내용	슬로푸드음식문화제, 4대문빛축제, 나주읍성카니발, 골목길예술제 등
진행	주간·야간 프로그램 - 계절별 상시 축제 ※ UNESCO 창의도시 추진
운영	나주문화원 등 지역의 참여와 협력 - 미래지향적 축제프로그램개발
기대 효과	스토리텔링, 축제와 연계한 문화도시관광, 시민참여의 소통 및 상생 야간빛축제와 카니발을 통한 야간상권 활성화 기대 세계문화도시와 축제·문화 교류(구이리/아비뇽), 전통문화도시브랜드 강화

4대문	읍성지구	나주천	목사골시장
나주화정문빛축제	나주읍성카니발	나주천달빛축제	거리 퍼레이드
골목길 예술제	소리 음악제	나주이삭공예	디자인 비엔날레

66

4. 전통시장의 역사도시적 맥락 연계 및 경쟁력 강화

- 역사문화도시의 특성에 부합되는 전통시장의 현대화
- 전통시장의 시설개선의 주제화와 더불어 상인거버넌스 형성 관리



67

부여 상권활성화와 연계한 도심재생 토론회 토론편

시장경영진흥원 류태창

- 중앙 관계부처는 지역의 상권 활성화 및 회생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민 또는 지자체가 파악하고 있는 사업들에의 이해정도(상권활성화를 중심으로)논의
- 현재 대상구역의 지자체 역량을 감안했을 때 재생과 상권활성화 사업에 있어 비중여부를 두어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인데 지역(부여군)상황과 여건을 고려했을 때 어떤 사업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 사업 진행에 있어 사업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조직 구성에 있어 지자체가 판단하고 있는 현황과 상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황에 있어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올바른 조직 구성을 위한 방안은 어떤 형태인지?
- 지역내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상인과 기구와의 대립적 경제활동이 발생될 때 지자체의 역할과 상인들의 올바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 * 문제해결을 위한 일반적 의견 제시보다는 적극성을 가질 수 있는 대안 제시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상권활성화 또는 지역 재생 사업에 있어 지역 내 전문 인력 확보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내에서 전문가를 확충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확충을 위한 방안 여부? (지자체 또는 상인)
 - * 사업 진행에 있어 전문가 상주시 발생되는 많은 예산 확보 문제 등

68

부여 상권활성화와 연계한 도심재생 토론회 토론회

대전발전연구원 이영복

1. 1980년대 중반 이후 지방대도시 도심에서 산업 및 중추관리기능의 약화, 상주인구 감소 등의 도심쇠퇴현상이 발생하여 도시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함
2. 도심쇠퇴방지정책의 우선순위가 낮았고 단편적 재개발사업 위주로 대처함. 그러므로 차별화 되는 종합도심관리전략을 실시하여 도시전체발전을 지속적으로 선도해야 함
3. 지방도시의 대부분은 전통산업의 구조조정 미흡과 중추관리기능의 외곽이전 등으로 관련 산업의 동반 이전으로 쇠퇴는 가속화됨
4. 지방도시의 도심지역은 기반시설의 노후화, 좁은 도로와 주차시설의 부족, 높은 건폐율과 낮은 용적률로 인한 저층·고밀의 건축물 등 압축요인이 증가되고 있음
5. 도시가 불균형적으로 성장하여 지역간 격차(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확대되기도 하고 도심의 중심성이 약화되어 도시전체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지 못함. 이처럼 쇠퇴된 도심공간에 대해서는 여건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하고 새로운 성장의 기운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의 노력이 필요함
6. 도시재생의 개념을 영어로 표현하자면 사회적 개념에서는 Renovation(수선, 쇄신, 원기 회복), 도시적 개념에서는 Regeneration(개혁, 쇄신, 재생), 문화적 개념에서는 Renaissance(부흥, 부활, 신생)으로 정의할 수 있음
7. 지역의 도시재생 하고자 할 시는 지역의 특성을 우선 파악하여 위의 3가지 재생에서 어떠한 것을 목표로 할지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8. 부여의 도시는 과거의 역사를 자원으로 한 관광형 도시와 일반적 도시생활패턴 도시가 혼재되어 있다고 판단됨. 특징 없는 도농통합도시 형태로서는 타 도시와 비교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임
9. 부여군은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의 매력과 경쟁력을 높여 지역활성화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도심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에 의한 투자 등

민간의 힘을 도심에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중점과제의 하나로 「도시재생」에 주력해야 함.

10. 부여 도시는 부여를 대표하는 공간으로서 상징성을 유지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도시계획적으로도 계획이 되어야 함. 즉 주민들이 가장 빈번히 접촉하고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들을 우선적으로 맞이하는 공간•집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함
11. 지금까지 부여를 견인하여왔던 역사자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역사문화자원의 발굴이 이루어 져야 하며, 문화부문(소프트웨어)의 상대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유형의 도시문화전략을 선도적으로 채택하고 시행되어야 함
12. 부여와 같이 역사적 정체성을 가진 지역에서는 역사, 문화유산 활성화, 지역자산의 콘텐츠화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 수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이 추진되어야 필요성이 높음
13. 주민단체와 지자체가 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도시재생을 추진하여야만 성공률이 제고되는 것은 필수조건임
14. 앞으로 부여의 상권활성화와 연계한 도시재생은 도시기능 활성화와 도시공간의 어메니티 증진이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특성을 갖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주민주도형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부 록

2012년 10월 15일

부여 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회의록

강헌수 (성남시장상권활성화재단 상권활성화 본부장)

• 상권활성화사업이 크게보면 매력적인 관리대상으로

- ① 부여시장, ② 중앙시장, ③ 부여시장~버스터미널, ④ 중앙시장과 사비로 사이의 남북으로 이어지는 데테이션스 있는 명동거리, 그 외의 영역은 거의 주거지역

• 부여시장과 중앙시장의 차이는 공설인가의 여부

- 부여시장은 공설이므로 편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함
- 가장 첫 번째 방향은 활용 가능한 자원을 찾아 활용하는 것 → 공유지, 국유지의 활용
- 가장 큰 것이 부여시장임 → 어떤 형태로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리가 필요
 - 롯데에서 지원해 줄 것을 부여시장에 위치
 - 오일장 문제, 주변 정리 등의 고질적 문제 해결 필요

• 부여~버스터미널

- 도로폭이 10M정도, 부여 내에는 교통량이 많지 않고, 체중도 심각하지 않으므로 도로폭이 넓은 편
- 아케이드를 세우는 것은 반대, 1층 높이에서 정리는 필요

• 중앙시장

- 시설면에서는 모두 갖춰졌음
- 상태가 나쁘지 않음
- 상권이 위쪽으로 확대가 안되는 부분의 해결 필요

• 명동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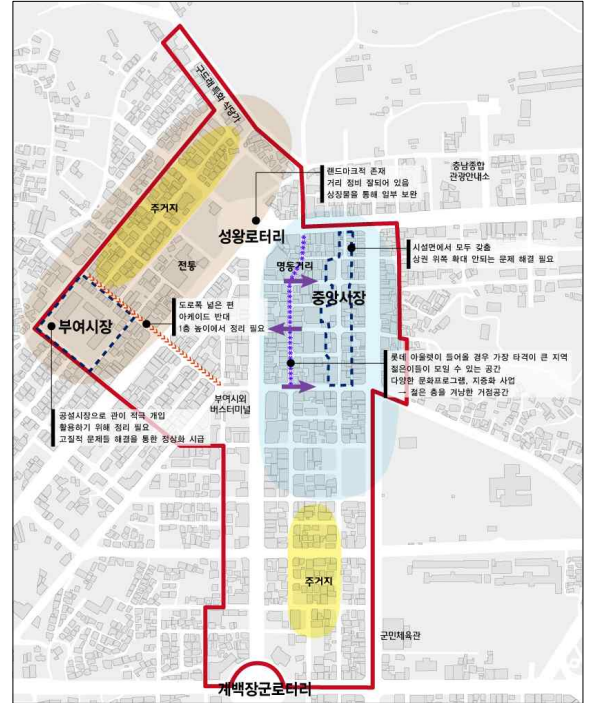
- 롯데 아울렛이 들어오면 타격이 큼
-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임
-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지중화사업의 최우선 구역
 - 거점공간으로 삼아 젊은층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 로터리

- 지역의 랜드마크로, 거리도 잘 정비되어 있음 → 상징물을 통해 일부 보완하면 충분

① 부여시장의 정상화 방안

② 젊은층을 겨냥한 명동거리 개선



73

74

김승일 (수원 못골시장 PM, 시장과 사람들 대표)

• 중앙시장이 먼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부여시장보다는 중앙시장이 롯데로 인한 직격타가 큼 것
- 중앙시장이 타격을 받으면 부여시장도 어려워 질 것
- 의류매장이 타격을 받으면 의류매장을 방문했던 고객이 중앙시장에서 식품도 사는 것인데 함께 타격받을 것

• 특성화사업을 통해 명동거리+중앙시장+점점사지 문화제

• 동쪽 젊음의 거리, 서쪽 실버층을 겨냥한 프로그램으로 양쪽을 나누는 것이 좋겠음

- 부여시장은 중장년층을 위한 시설운영 : 시설 이용을 위한 접근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음
- 문화적 소외지역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시설 필요 → 동쪽에서 이루어지면 좋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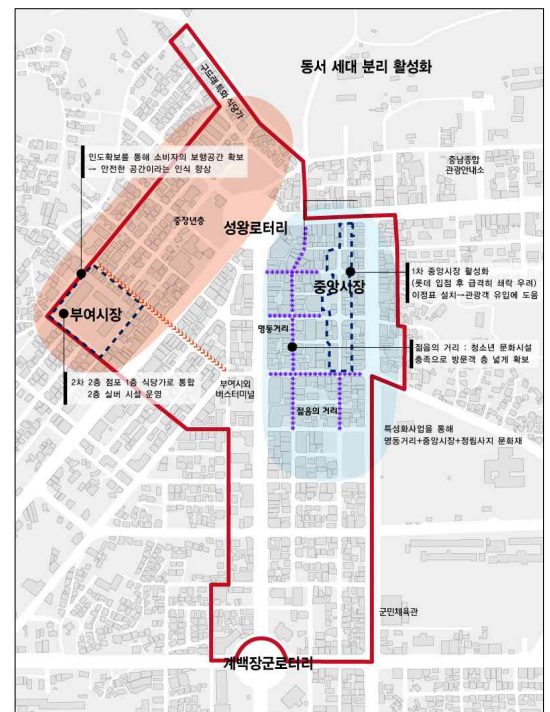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지역 내에 문화시설 부족하므로 문화시설 충족과 방문객 층의 넓게 확보

• 정비가 덜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 → 인도정비를 통해 소비자의 보행 공간을 확보해줘야 함

- 도로에 전용되어 있는 공간을 정리해서 안전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주어야 중앙시장과 부여시장 연계가능
- 주차장이 있으나 공간이 팍차 있는 것이 아니므로 도로정비가 되면 주차장이 잘 것
-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고는 하지만 외부 고객의 유치를 위해서는 이정표가 중요
 - 주변관광지 왔던 사람들의 유입을 위해서는 이정표가 있는 것이 상권에 도움이 됨

① 동서 세대분리해 2가지 컨셉으로 상권활성화 (동: 젊은세대, 서: 중장년층)

② 특성화사업을 통해 부분적으로 소상공인 활성화 (명동거리+중앙시장+점점사지 문화제)



75

76

김종대 (문전성시 사업단 단장)

- 전제조건

- 부여군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가?
- 관광형시장 vs 생활밀착형시장

- 개발방식

- 주민이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함 vs 전문가 교육이 필요하다

• 교육방식

- 주입식교육이 아닌 가지고 있는 것을 끌어내는 교육방식이 필요함

• **홍보**

- 차없는 거리, 벽화, 축제 등 모두 홍보의 수단임
- 축제 때 물건이 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되고 입소문이 나서 방문객이 증가하는 것이 더 중요함

- 중앙시장

- 생활형식장으로 가는 것이 맞다 → 생활형식장이란 주민이 주요 고객임
-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 승용차 위주
- 아케이드 개선 → 필요하다지만 최선 vs 차선 선택
- 공동물류, 공동마켓팅 지원
- 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 → 삶의 가치의 변모 필요
 - 동거리 등의 커뮤니티 활성화 → 지역으로 확산되는 프로그램이 있음

- 부여시장

- 생활형시장으로 키우는 것은 우리들의 길이 많음
- 지역의 작가가 많아 작품을 전시, 판매 공간을 마련해 주길 바랬었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음
- 비어있는 공간을 가장 쉽게 활용하는 방법 → Artist Residency
 - 비어있는 2층 공간을 예술가들이 공방으로 활용하면서 체험활동 지원 가능

- 예술허물들을 하면서 지역에 공헌하는 방법 → 주말 야시장 개장, 수공예품 판매
 - 공간은 고민
 - 관리가 어려우나, 롯데에게 지원 받을 수 있음
 - 지역 예술 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음
 - 전세계적으로 야시장, 새벽시장 관광이 대두되고 있음

- 부여시장~버스터미널

- 불법유통유근물을 당장 허무는 것도 어려움이 있으며, 낚았지만 정위가 있는 건물이므로 멕시코 라이브리리처럼 변화를 통해 부여시장의 게이트 역할을 할 수 있음
- 진입이 불편해서 안온다는 것은 맞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함
 - 홍대의 작은 골목들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중요
- 노점상을 다시 돌리기에는 반발이 있을 것
- 다른 유형으로 아시장과 같은 형태로 돌리는 것이 좋을 것

- 명동거리

- 문화의 거리로 아트릭과 같이 만드는 것이 좋겠음
- 차임은 거리를 만들어서 불편할 수 있고, 상품이 많이 팔리는 실용성도 있겠으나 선행적 의미로 '주말 차임은 거리'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특성화된 길

- 특성화된 길을 만들 때는 길 끝에 불거리를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걷게됨
- 중앙시장 남쪽길 끝에 불거기로 부족하므로 정림사지 모서리에 불거리를 만들어 줄으로써 사람들이 걷게 될 것이라 예상



진영호 (두리 공간환경연구소 소장)

- 부여시장과 중앙시장 통합

- 중앙시장을 매입해 부여시장상인을 중앙시장 쪽으로 통합 → 부여시장을 다른 방안으로 활용

- **부여시장을 문화거점으로 활용** → 부여시장이 관소유이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많음

- 바로셀로나의 꽃잎 모양의 아케이드를 보기위해 방문
- 불가리코서의 리노베이션을 통해 거점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노선이 연결될 수 있음
- 리조트와 차별화된 공간

- 상인의 의지가 중요 → 교육에 대해 회의적인 것은 알지만 노력이 필요

- 상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동기부여
 - 사라진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시장도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줘야 함
- 오래 걸리더라도 상인들이 협조해서 협정을 맺으면서 발전시키거나 함
- 부어지기가 회의적인 것은 노년층의 상인이 많기 때문에 노년층은 변화하려하지 않음
 - 서서히 경쟁력을 잃기를 기다렸다가 문화에숨어들거고 새롭게 일어나는 것도 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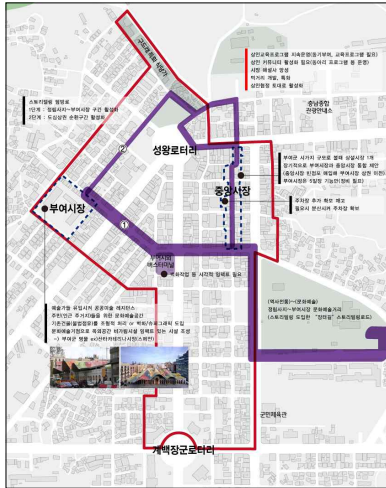
- 거리 활성화

- 부여시장~버스터미널~중앙시장의 거리를 활성화
 - 인도 정비, 정립사지 쪽에 요소를 넣어주면 좋겠음
 - 정립사지, 시장, 유적지 등 다양한 공간이 있어서 재미있는 공간이 나올 것

- 지역자원 활용

- 부여백제문화센터 : 상품개발, 사업을 함 (<http://www.cpch.or.kr/>)
-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 문화행사, 상품개발
- 문화재단에서도 커뮤니티활성화 사업을 지원해줌

· 지역자원을 활용하는게 가장 빠른 →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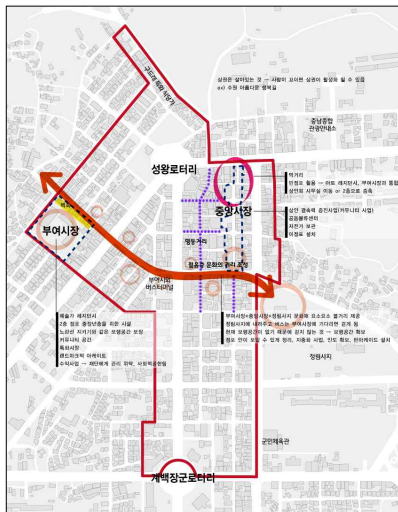


81

회의록 종합 정리

	Software	Hardware
부여시장	주말장터, 고추장개장 → 상인의지부족 정리 필요 → 오일장관리, 불법전대단속, 빈점포 활용 오일장상인회와 시장상인회 관계 조율 필요 공설시장이므로 관의 개입을 통한 관리 필요 / 재단 위탁 수익사업 : 사회적 기업 이용 / Artist Residency 빈점포 활용 : 문화 vs 공공시설 관광형시장 → 관광버스위주	아케이드 설치 → 불거리제공 관광버스를 위한 주차공간 필요 불법점유 건물 활용 : 철거후 주차장 유지 벽화조성 통해 게이트역할
중앙시장	부여시장보다 롯데입점으로 타격 클 것(김승일) 생활형시장 → 승용차위주 공동유통류, 공동마케팅 지원 커뮤니티 활성화 → 지역확산 위쪽으로 상권을 확산시켜야 함	시설양호 주차장현행유지 → 이면도로 활용, 주변환경정리 이점표 설치
재래시장 (부여시장~ 버스타미널)	오일장 이전 정리 후 빈점포 증가 보행안전보장 → 안전한, 걷고싶은 거리 조성 주말야시장 → 롯데지점(협약), 공익적성격, 사회적기업	아케이드 설치 반대 1층 높이정리(반아케이드, 전열대통일) → 점포의 내부모습 볼 수 있어야 함 지중화, 인도 설치
명동거리	롯데 아울렛 입점하면 타격 큼 젊은 층을 위한 문화시설, 문화거리 조성 통해 거점공간 차입는거리 → 정해진시간대, 주말, 홍보효과	지중화
전체, 연계	상인을 위한 동호회, 커뮤니티 → 동기부여 부여시장 + 중앙시장 통합 → 중앙시장으로 옮기고, 부여시장은 다른용도로 활용 관광형시장 vs 생활형시장 → 성격 명확히 교육은 가르치는게 아니라 끌어내는 방식을 도입	인도정비 → 걸을수있는거리 조성
특성화 거리	시민단체, 문화단체 이용 → 부여백제문화센터 이용 감성적 접근 필요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정리 롯데리조트에서 투어상품 개발해 버스 운행	정림사지 모서리 불거리 조성 스토리텔링 → 요소요소 필요 정리사지하자 → 도보이동 → 부여시장버스대기 걸을 수 있는 환경 조성

82



83